

BOK 이슈노트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

2022년 6월 21일

오강현* · 임웅지** · 이택민*** · 김윤경**** · 이재진***** · 최열매*****

최근 국제식량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곡물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높은 소맥(밀), 옥수수 등의 공급차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유지류 및 육류가격도 수출제한과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식량가격 상승은 국내 식료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공식품가격은 국제식량가격 상승세 지속의 영향으로 하반기중 오름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외식물가도 오름세가 과거 급등기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와 맞물려 물가상승 확산세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가격은 국내 요인의 영향이 커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2020~21년 중 크게 높아진 수준이 유지되며 실제 상승률에 비해 체감물가가 높은 편이며 돼지고기 등 축산물가격은 최근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품목 대다수가 구입빈도가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 품목인 점을 감안할 때 체감물가 상승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한편, 국내 식료품 및 외식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 (전화: 02-759-4412, e-mail: khoh@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 (전화: 02-759-4220, e-mail: ungb@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 (전화: 02-759-4213, e-mail: tmlee@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조사역 (전화: 02-759-4454, e-mail: YounKyeong@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조사역 (전화: 02-759-4267, e-mail: jjlee1121@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조사역 (전화: 02-759-4262, e-mail: ymchoi@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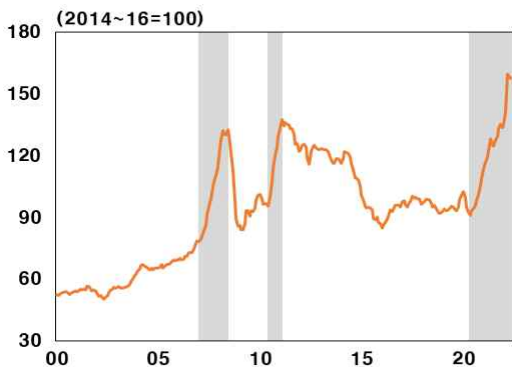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웅 조사국장, 전광명 물가분석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I. 검토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등 국제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애그플레이션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국제식량가격 상승이 국내 식료품(가공식품·농축수산물) 및 외식 물가 등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국제식량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곡물 수입의존도²⁾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본고는 최근 국내외 애그플레이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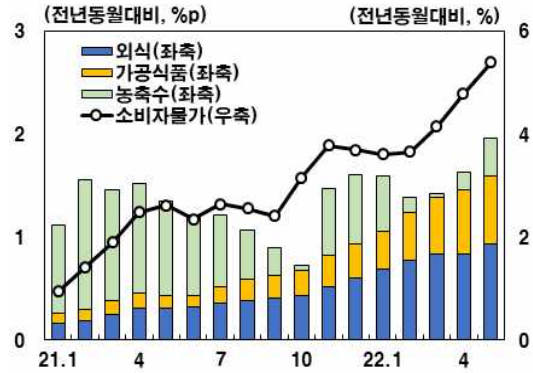
<그림 1> 국제식량가격¹⁾²⁾



주: 1) FAO 식량가격지수
2) 음영은 식량가격 급등기

자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그림 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II.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1. 국제식량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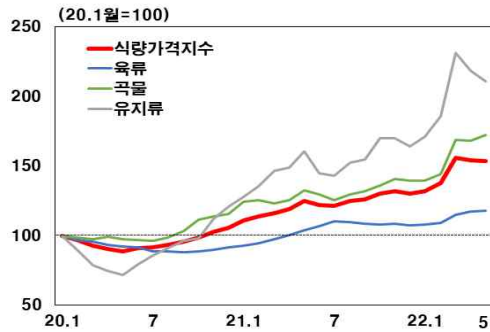
최근 국제식량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는 금년 3월중 곡물과 유지류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5월중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3> 참조).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높은 소맥(밀), 옥수수 등의 공급차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유지류가격은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 수급차질, 이에 따른 팜유와 대두유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4> 및 <그림 5> 참조). 또한 육류가격도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1)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20일 현재의 식량수급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수급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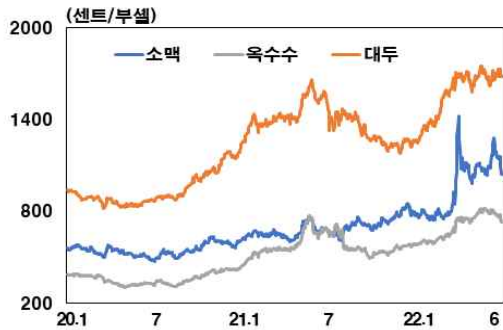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 자급률은 더욱 낮아진다(소맥 자급률: 0.8%,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3> 품목별 국제식량가격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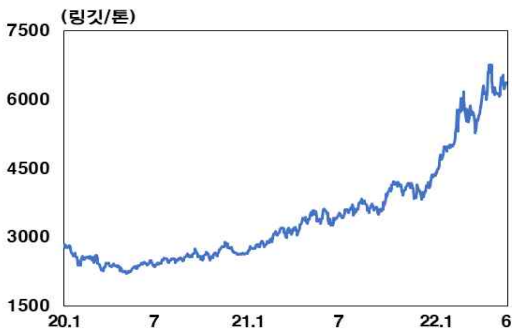
주: 1) 20.1월=100으로 재조정
 자료: FAO, 자체시산

<그림 4> 국제곡물가격¹⁾



주: 1) 최근월물 기준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Bloomberg

<그림 5> 국제팜유가격



자료: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Bloomberg

2. 국내물가

앞서 살펴본 국제식량가격 상승은 국내 식료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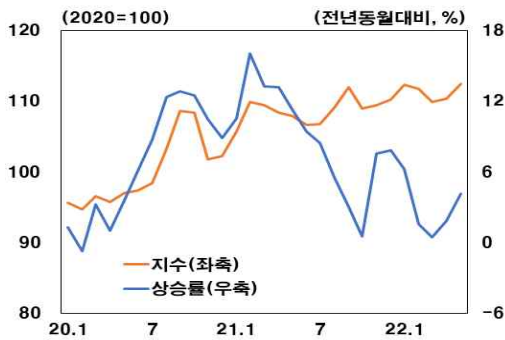
다만 품목별로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 참조). 국내요인(기상여건, 조류독감 등 감염병 상황)에 크게 영향받는 농축수산물가격은 지난 2년간 크게 높아졌는데 최근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농산물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그림 7> 참조)을 보이고 있지만 축산물가격은 최근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은 국제식량가격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며(<그림 8> 및 <그림 9> 참조)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림 6> 국제식량가격 상승의 국내물가 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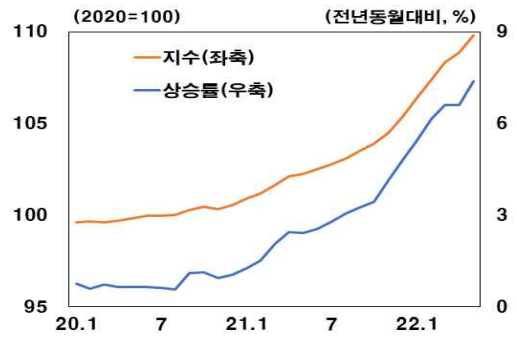
자료: FAO, 통계청

<그림 7>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자료: 통계청

<그림 9> 외식 물가 동향



자료: 통계청

<그림 8> 가공식품 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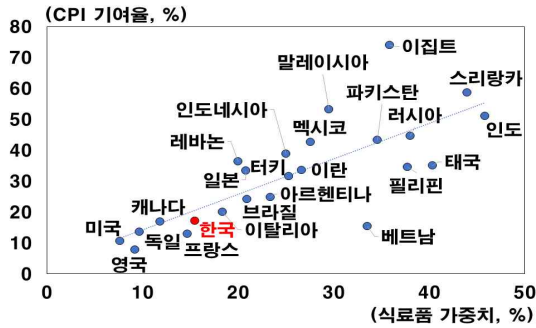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제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영향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주요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가지수 내 식료품 가중치가 높은 신흥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0> 참조).

미국이나 유로지역과 비교했을 때, 금년중 우리나라의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 효과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외식물가 오름세는 주요 선진국과 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그림 11> 참조).

한편 식료품가격 상승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곡물 수입비중이 높은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급차질이 심화된 소맥(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서의 물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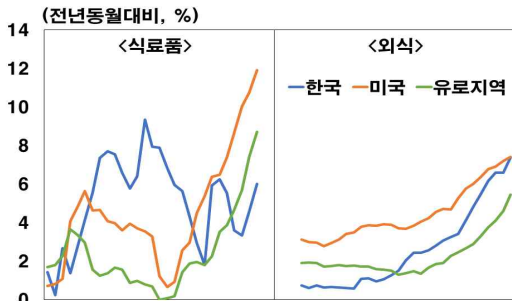
<그림 10> 국가별 식료품 가중치 및 기여율



주: 1) 5월 기준(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레바논은 4월)

자료: CEIC, Haver, OECD, 각국 통계청, 자체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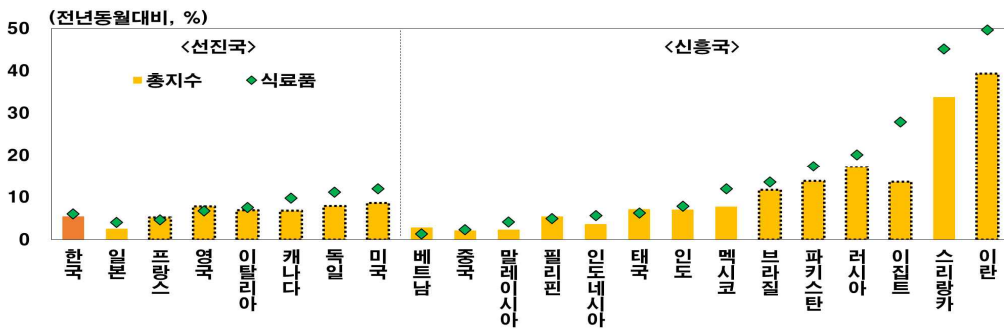
<그림 11> 주요국 식료품 및 외식¹⁾ 물가 상승률



주: 1) 미국은 food away from home, 유로지역은 catering service 기준

자료: 통계청, BLS, Eurostat

<그림 12>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식료품가격 상승률¹⁾²⁾



주: 1) 5월 기준(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는 4월)

2) 검은색 점선은 밀이 주식인 국가

자료: CEIC, Haver, OECD, 각국 통계청

Ⅲ. 최근 애그플레이션 전개 양상의 특징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애그플레이션 전개 양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1. 국제식량가격 높은 수준 상당기간 지속

최근의 국제식량가격 상승세는 지난 2011년 급등기에 비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그림 13> 참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급 상황 악화(공급차질 및 수출제한), 생산비(비료가격) 상승 등은 상당기간 국제식량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급차질] 팬데믹 이후 물류비, 인건비 등이 상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며 곡물 등의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여파로 수출항로가 차단³⁾된 데다 파종 차질, 인력난 등으로 수확기(7~10월) 생산·수출이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⁴⁾, 남미 등 곡물 주산지의 이상기후로 파종 및 생육이 지연되면서 금년 작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4> 참조).

3) 유엔은 약 2,500만 톤의 곡물이 인프라 부족, 러시아의 흑해 항구 폐쇄 등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Reuters, 5.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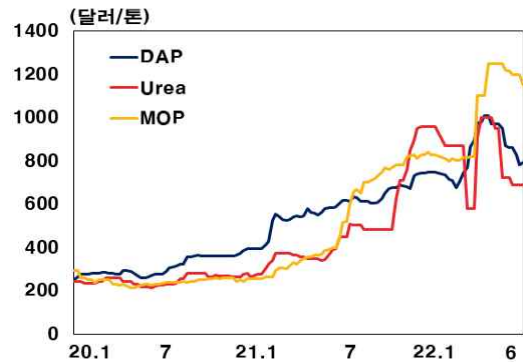
4) 미국 내 옥수수 파종이 예년에 비해 상당폭 지연된 데다 겨울밀의 양호·우수(Good & Excellent) 등급 비중(31%, 지난해는 49%)이 감소하였다. (USDA, 6.12일)

[수출제한] 전세계적인 수급 상황 불안에 따른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규제 확산⁵⁾은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맥이나 해바라기유, 팜유 등의 주요 수출국들이 전쟁(러시아, 우크라이나)이나 생산차질(인도), 품귀현상(인도네시아) 등을 이유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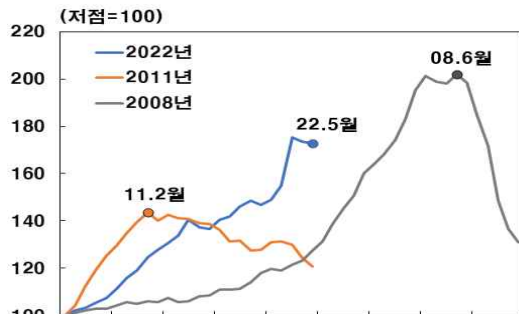
[비료가격] 러시아, 중국 등의 비료 수출제한⁶⁾,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암모니아 및 요소의 가격 상승 등으로 비료가격이 급등한 점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비료가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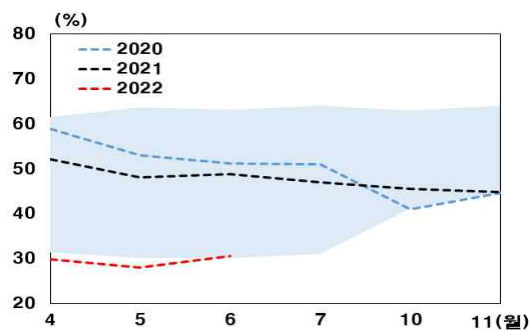
주: 1) DAP는 암모늄, Urea는 요소, MOP는 칼륨 비료
자료: 세계은행

<그림 13> 식량가격 급등기¹⁾ 비교



주: 1) 급등기별 저점은 각각 05.4월, 10.6월, 20.5월
자료: FAO, 자체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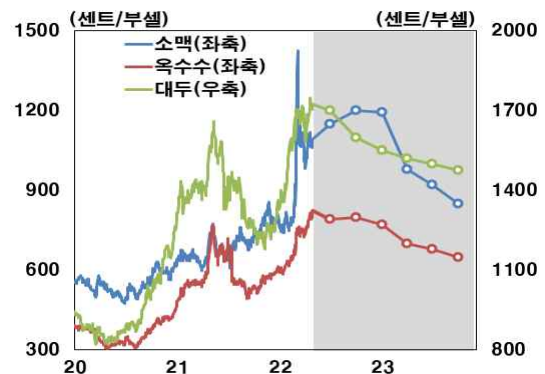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 겨울밀 작황¹⁾²⁾



주: 1) "Excellent" 또는 "Good" 등급 비중
2) 음영은 2013~21년 범위
자료: USDA

한편, 주요 전망기관들은 하반기중 곡물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6** 참조). 그러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작황 부진, 수출제한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16> 주요 곡물가격 전망¹⁾



주: 1) 5개 투자은행 전망치 중위값(CBOT 가격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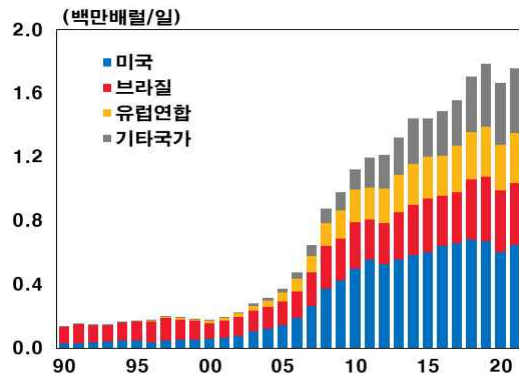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바이오연료로의 생산전환⁷⁾(**그림 17** 참조)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등이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5) 6월 중순 현재 수출 규제 도입 국가 수와 전체 교역 물량 대비 규제 대상 물량 비중은 각각 27개국, 17.2%로 2008년 급등기 수준(33개국, 18.7%)에 근접하고 있다.(국제식량정책연구소, <부록 1> 참조)

6) 전세계 칼륨비료의 14%를 수출하던 러시아가 최근 비료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칼륨비료의 16%를 수출하던 벨라루스도 주요 수출경로인 리투아니아의 제재 동참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국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료수출을 제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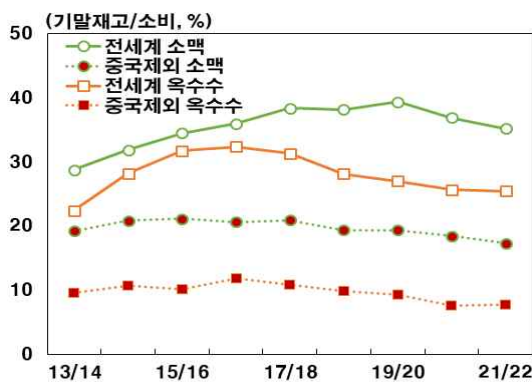
특히 올해 주요 곡물의 재고/소비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할 경우 동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수급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8> 참조).

<그림 17>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자료: 세계은행(22.4월)

<그림 18> 주요 곡물 재고 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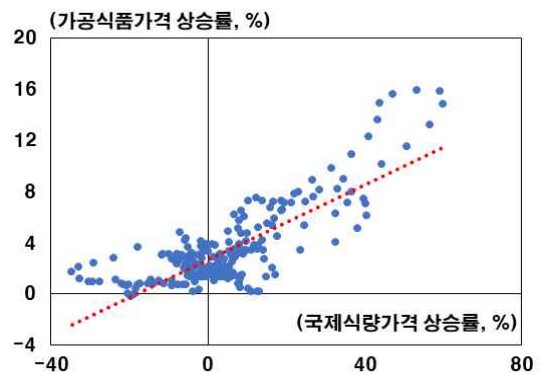


주: 1) Marketing year 기준
자료: USDA

2. 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세는 과거 급등기 수준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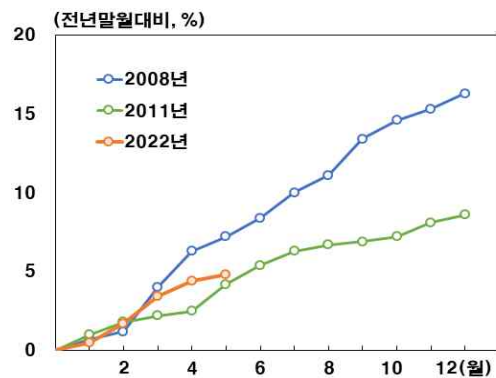
최근 가공식품가격은 팬데믹 이후 물류비와 인건비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식량가격 상승세 지속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⁸⁾되면서(<그림 19> 참조)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금년중 가공식품가격 오름세는 지난 2011년 급등기의 오름세를 상회하였다(<그림 20> 참조).

<그림 19> 가공식품 및 국제식량가격¹⁾



주: 1) 국제식량가격 및 11개월 후 가공식품가격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개월 이동평균, 2001년~현재)
자료: 통계청, FAO

<그림 20> 가공식품가격 누적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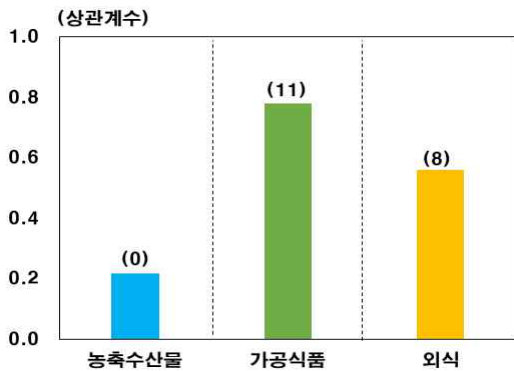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7)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량이 향후 5년간 50% 가량 늘어나고 현재 4%에 불과한 바이오연료용 재배면적 비중도 2%p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 22.4월)

8) 국제식량가격 상승은 원재료비 인상을 통해 가공식품, 외식 등 식품관련 품목으로 주로 파급되지만 사료, 팜유 등 1차 가공품을 원재료로 하는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도 광범위하게 파급된다(<부록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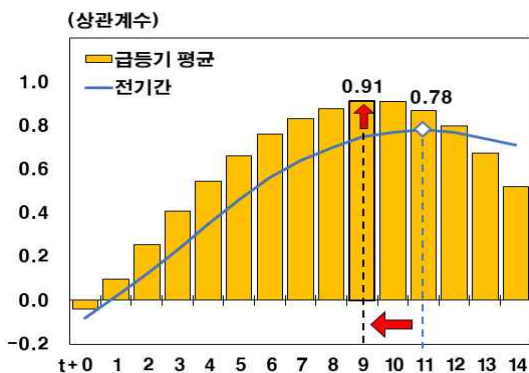
특히 가공식품가격은 국제식량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농축수산물, 외식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그림 21> 참조)인데 최근과 같이 식량가격 급등기에는 가공식품가격으로의 파급시차가 단축되고 상관관계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그림 22> 참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식량가격 상승의 영향이 원재료비 인상 등을 통해 제품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금년 하반기 중 물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1> 국제식량가격¹⁾과의 상관관계¹⁾



주: 1) FAO 식량가격지수 기준
2) ()내는 최대 시차 개월(2001.1~2022.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그림 22> 국제식량가격의 가공식품가격 파급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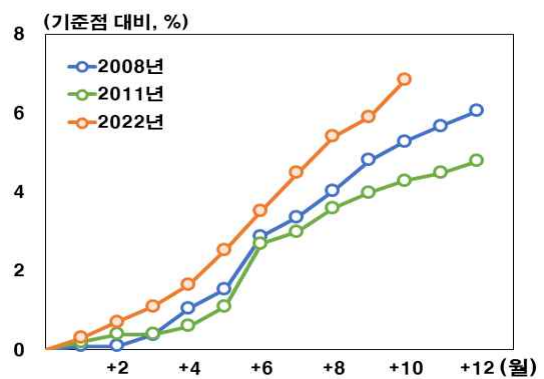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간 시차상관(2001.1~2022.2월 기준)
2) 2008년, 2011년 및 최근 급등기
자료: 통계청, FAO, 자체시산

외식물가의 경우에도 오름세 및 물가상승 확산세가 과거 급등기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그림 23> 및 <그림 24> 참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 외식 및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를 분해하여 과거 급등기와 비교해보면, 최근 외식품목의 기여도가 과거 급등기에 비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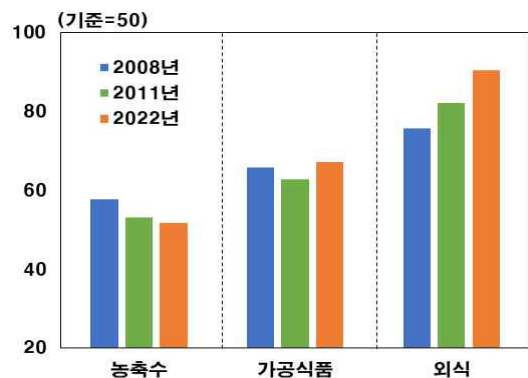
앞으로도 외식물가는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압력이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3> 외식물가 누적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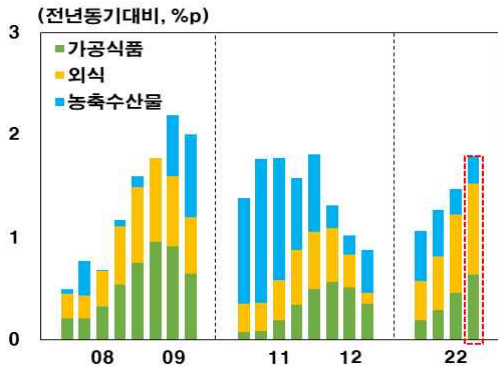
주: 1) 시작 시점은 각각 2007.9월, 2010.8월, 2021.7월
자료: 통계청

<그림 24> 급등기 확산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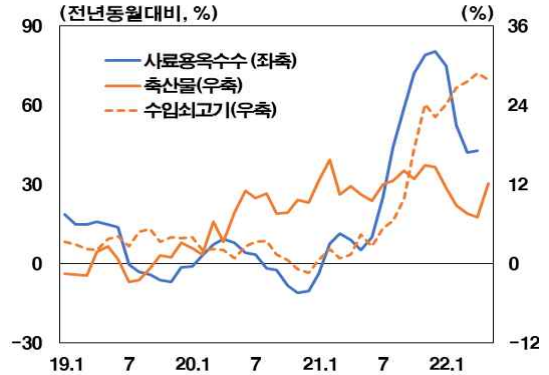
주: 1) 개별품목별 상승률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후 가중합산한 것으로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수록 상승한 품목의 비중이 많은 것을 의미
2) 2022년은 1~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시산

<그림 25>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¹⁾



주: 1) 분기 기준, 2022.2/4분기는 4~5월 상승률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시산

<그림 27> 사료용 곡물 및 축산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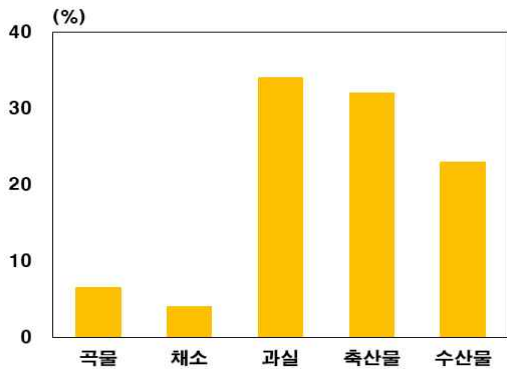
주: 1) 관세청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지수(원화기준)
자료: 관세청, 통계청

3.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세 확대

농축수산물가격은 채소, 곡물(쌀) 등의 국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그림 26> 참조) 수입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상승률 자체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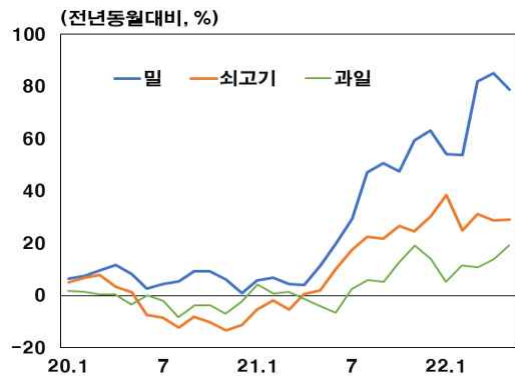
다만 수입 농축수산물가격의 경우 국제식량 가격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28> 참조). 또한 2020~21년 중 이어진 폭우, 한파 및 조류독감 등으로 크게 높아진 농축수산물가격 수준이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실제 상승률에 비해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림 26> 농축수 품목별 수입 비중¹⁾



주: 1) 2019년 투입산출표상 민간소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그림 28>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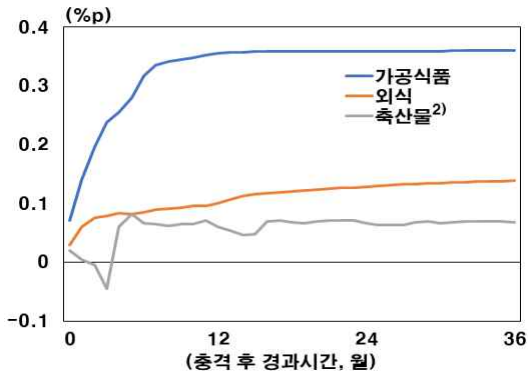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V. 평가 및 시사점

국제식량가격 상승은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국내물가에 파급되면서 금년 하반기중 물가에 상방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제식량가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의 상승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⁹⁾이 높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수입 농림수산물가격 상승시 품목별 반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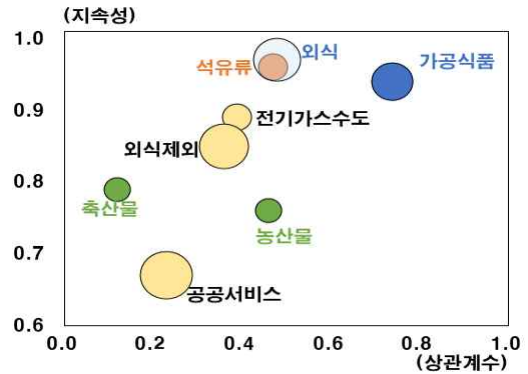


주: 1) IPI 농림수산물(원화)이 전월대비 1% 상승시 누적상승률
2) IPI 곡물및식량작물(원화) 상승에 대한 반응
자료: 한국은행, 자체시산

특히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커 높아진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품목들의 대다수는 구입빈도가 높고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감물가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그림 30> 및 <그림 31> 참조). 한편, 국내 식료품 및 외식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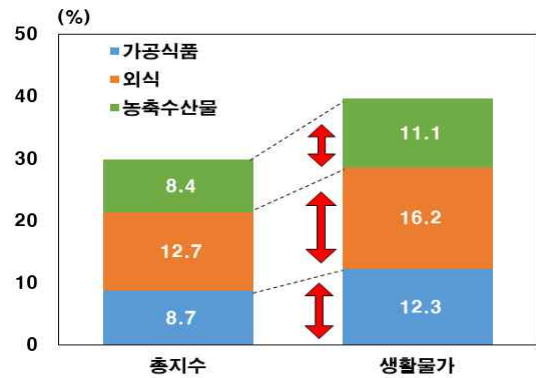
오름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0> 생활물가 품목별 가격 지속성¹⁾, 비중²⁾, 기대물가와의 상관관계³⁾



주: 1)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의 AR(p)계수의 합
2) 원의 크기에 비례
3) 2010.1월~2022.5월 기준
자료: 관세청, 통계청

<그림 31> 생활물가지수 내 비중차



자료: 통계청

9) 국제식량가격이 국내 물가에 외생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모형을 설정하고 충격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 농축수산물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국내 가공식품가격은 향후 1년간 0.36%p, 외식물가는 3년간 0.1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
$$\Delta y_t = C + \sum_{k=1}^{p_y} \beta_{y,k} \Delta y_{t-k} + \sum_{k=0}^{p_1^+} \beta_{1,k}^+ \Delta x_{1,t-k}^+ + \sum_{k=0}^{p_1^-} \beta_{1,k}^- \Delta x_{1,t-k}^- + \dots + \epsilon_t$$

Δ: 전월대비 로그차분, y_t : t기 내생변수, $x_{m,t}$: t기 m번째 외생변수, C: 상수항, β: 해당 계수
 $\Delta x_{m,t}^+ = \max(\Delta x_{m,t}, 0)$, $\Delta x_{m,t}^- = \min(\Delta x_{m,t}, 0)$

<부록 1> 주요 생산국 식량 수출규제 현황

전세계적으로 식량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고 식료품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수출금지, 허가제 등 규제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 소맥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인도도 그간 소맥 수출 물량을 점차 늘려왔으나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자국 내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5.13일 소맥 수출을 금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씨유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였는데, 대체재인 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을 4.28일부터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전세계적 수출규제 움직임은 2008년 급등기 당시의 규제 확산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중순 현재 수출 규제 도입 국가 수와 전체 교역 물량 대비 규제 대상 물량 비중은 각각 27개국, 17.2%로 2008년 급등기 수준(33개국, 18.7%)에 근접하고 있다.(국제식량정책연구소, 22.6월)

최근 국가별 주요 수출규제 조치

국가명	규제조치	규제상품(조치일)
아르헨티나	수출세	대두유·대두(3.19일)
인도	수출금지	밀(5.13일), 설탕(6.1일)
인도네시아	수출금지	팜유 등(4.28일, 5.22일 해제)
러시아	수출금지	밀·보리·옥수수·설탕 등(3.14일), 해바라기씨(4.1일)
	수출허가제, 수출세	해바라기씨유 등(4.15일)
터키	수출금지	식용유(3.4일), 소고기·양고기·염소고기(3.19일), 버터(4.15일)
	수출허가제	곡물·식용유 등(3.4일)
우크라이나	수출허가제	가금류·계란·해바라기씨유 등(3.6일)
	수출금지	밀·설탕 등(3.9일)
말레이시아	수출금지	닭고기(6.1일)

자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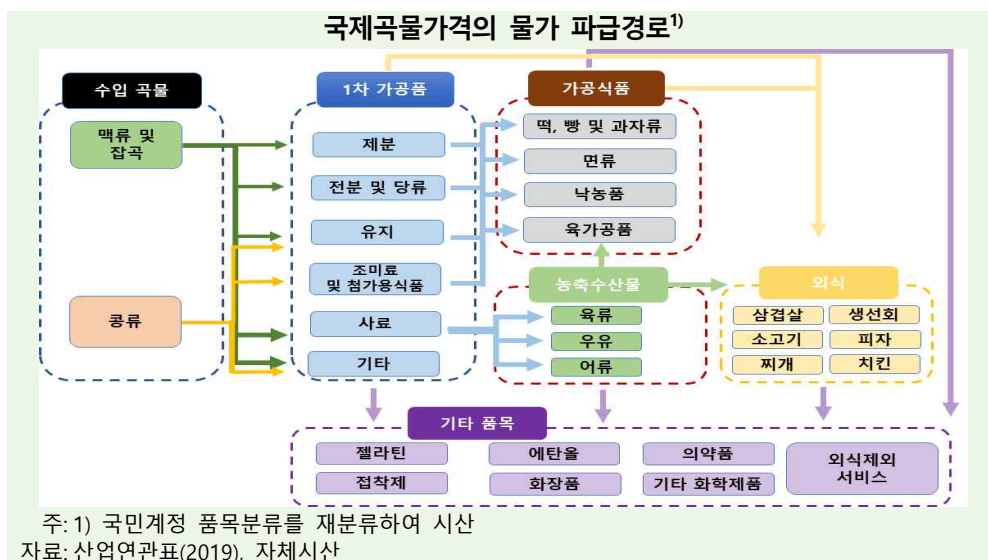
<부록 2> 국제곡물가격의 국내물가 파급경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원재료가격을 올려 가공식품, 외식, 축산물 등 국내 식료품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분, 전분 및 당류(1차 가공품) 등이 먼저 영향을 받고, 이들 품목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라면, 빵, 과자류(가공식품) 등도 시차를 두고 영향받는다. 또 1차 가공품에 해당하는 사료가격에도 국제곡물가격이 전가되면서 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축산물, 수산물, 원유(乳) 등 농축수산물 가격도 인상압력을 받는다. 또한 국내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 등의 서비스품목에도 비용인상압력으로 작용하여 관련 물가를 높일 수 있다.

산업연관표(2019)를 이용하여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 모두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경우의 최대 인상폭을 시산해본 결과, 수입 맥류 및 잡곡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제분(3.9%↑), 면류(0.5%↑), 음식점(0.2%↑) 등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인상은 식료품, 외식 뿐 아니라 1차 가공품이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타품목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과정에는 에탄올이 투입되기도 하는데, 곡물가격의 상승이 에탄올의 주원료인 전분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 의약품 가격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곡물 외 국제식량가격의 상승 또한 국내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한 팜유 가격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가격인상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관표(2019)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수입유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기타 화학제품(0.14%↑), 화장품(0.04%↑) 가격은 물론이고 비누, 세제 및 치약(0.22%↑)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참고문헌

- 오강현·김윤경·이재진·강재훈 (2022),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2-10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KREI 농정포커스, 제205호
- 이병록·남현우 (2021), "최근의 식료품가격 상승세 평가", 경제전망보고서(2021.2), 주요 현안점검
- 김종진·박성진·박지원 (2020), "수입곡물 가격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촌경제, 제43권 제2호: 29-58 (2020.6)
- 박성진·김종진·박지원 (2019),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887
- 김병률·이명기·유찬희 (2008),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KREI 논문,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10>>
- 한국은행(2019), 「산업연관표」
- World Bank (2022),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Commodity Markets", Commodity Markets Outlook, April.
- IMF (2012), "Commodity Price Volatility and Inclusive Growth in Low-Income Countries"
- ADB (2011), "Global Food Price Inflation and Developing Asia", March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2-23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